

18세기 함경도 관찰사의 순력(巡歷) 노정과 주요 업무

여상진
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The 18C Hamkyung-Gamsa's Sulryeok Routes and major duties

Sang-Jin Yeo

Division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Civil Engineering,
Sun Mo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함경감사가 작성한 감영(순력)일기인 윤양래의 “관북일기”와 “순력일록”, 심수의 “동북안사록” 중 ‘북행일록’, ‘북순일기’를 통해 함경도 관찰사의 순력 노정과 기간, 순력 중의 주요 업무 및 함경도 순력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함경도 관찰사의 순력은 조선시대 6대로 중의 하나인 경흥로를 거의 그대로 이용하며, 따라서 경흥로 상의 역할이 중요한 경유지가 된다. 대로를 이용한 순력은 산세가 험한 함경도의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영처 함흥을 중심으로 북순과 남순으로 나누어 시행하는데, 남쪽에 치우친 함흥의 위치로 말미암아 행영과 두만강 하구 관방지역 진, 보에 이르는 북순의 경로가 긴 것에 비하여, 안변에 이르는 남순은 경로와 기간이 짧다. 북순은 관문 취점, 윤조, 길주 별과, 유생 백일장과 무사 시사 등이 순력의 주요 업무이며, 남순은 영흥의 준원전, 문천의 숙릉, 안변의 지릉 등 왕실사적과 능침의 봉십이 주요 업무가 된다. 한편 순력 중 경승의 유람을 포함한 행로를 잡기도 하였는데, 북관10경이 유람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outes, periods, and characteristics of Hamkyung-Gamsa's Sulryeok(巡歷) and his major duties during the Sulryeok. For this purpose, all hitherto known Hamkyung-Gamsa's official diaries, such as "Gwanbukilgi(關北日記)", "Sunryeokilrok(巡歷日錄)" and 'Buksunilgi(北巡日記)', 'Bukhaengilrok(北行日錄)' of "Dongbukansarok(東北按使錄)", were investigated closel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Hamkyung-Gamsa's Sulryeok routes almost took the Gyeongheungro, which was one of the six main roads in the Joseon dynasty. The use of this road as the Sulryeok route was attributed to the rough terrain. 2) The Sulryeok routes were divided into two ways: the north and south routes centering on HamheungGamyong. As Hamheung is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Hamgyeong-do, the northern Sulryeok route, which reached the downstream side of the Tuman River and border defense facilities, was long and took a long period of time. 3) Hamkyung-Gamsa's major duties during the northern Sulryeok route were to check the border defense facilities and hold literary and archery contests and special state examinations, especially in Gilju. His major duties during the southern Sulryeok route were to inspect and maintain the royal tombs and historical landmarks, such as Junwonjeon, Sukreung, Jireung. 4) Sometimes the routes of Hamkyung-Gamsa's Sulryeok included some sightseeing spots, which were famous for ten scenic spots of Bukgwan.

Keywords : Governing Institutions, Hamgyeong-do, Hamkyung-Gamsa, Sulryeok, Su Shim, Yangrae Yoon

이 논문은 2011-2013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NRF-2011-0014951)

*Corresponding Author : Sang-Jin Yeo(Sun Moon Univ.)

Tel: +82-41-530-2311 email: sjyeo@sunmoon.ac.kr

Received August 21, 2017

Revised September 4, 2017

Accepted September 15, 2017

Published September 30, 2017

1. 서론

보물 제322호 제주 관덕정 옆에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례의 발굴조사 결과를 근간으로 2002년 12월 복원된 제주목 관아가 자리하고 있다. 복원된 제주목 관아 각 건물의 설명문을 보면 여타 도시에 복원된 관아 건물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설명 문구를 살필 수 있는데, 바로 이태익(李泰翼) 이형상(李衡祥) 이원조(李源祚) 등 제주목사의 생생한 이야기가 곁들여졌기 때문이다.

특히 복원된 망경루의 1층에는 1702년(숙종28) 이형상 목사가 제주도 내 각 고을을 순력한 내용을 그린 화첩인 ‘탐라순력도’(보물 제652-6호)를 바탕으로한 체험관을 만들어 당시 관찰사의 업무와 제주 각 지역의 순력 모습을 당시의 그림과 지도 그리고 실제 내용을 활용하여 보다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Fig. 1. The Experience of ‘Tamnasullyeokdo’

조선시대 관찰사는 도내 일체의 행정·사범·군사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조선전기 이래 각 군현을 순력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순력(巡歷) 행정체제를 따르다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감영에서 집무하는 유영(留營) 행정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유영행정체제에서도 봄과 가을 즉 1년에 2번 춘추순력이 시행되었으며, 농형(農形)의 간심과 기민(饑民)의 구제, 권농(勸農), 구료(救療)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1]

그런데 조선시대 각 도별 관찰사의 순력 노정과 순력 중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서는 관련 연구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적인 바, 이는 관련 사료의 부족에 전적으로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관찰사의 순력 노정과 행한 업무에 대한 관련 자료의 발굴과 연구는 조선시대 지방통치 행정의 일면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탐라순력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 읍치시설의 복원과 활용에 실질적

이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유영행정체제 시기의 함경도 관찰사를 대상으로 순력의 노정과 기간, 그리고 순력 중에 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징적인 점을 관찰사가 작성한 일종의 업무일지인 감영일기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자료가 부족한 조선시대 관찰사의 순력에 대한 연구에서 관찰사가 작성한 일기류 등의 자료는 구체성을 갖는 매우 귀중한 사료가 된다. 함경도 관찰사의 감영일기로는 18세기 초 함경감사 윤양래가 작성한 ‘관북일기’와 그가 행한 순력의 기록인 ‘순력일록’이 유일하였다.[2] 그러나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행한 국가지정이 아닌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의 전국적 조사에서 ‘동북안사록’이 발굴되었는데, 본서 말미에 저자인 심수가 함경감사로 재직시에 작성한 일기가 추가되어 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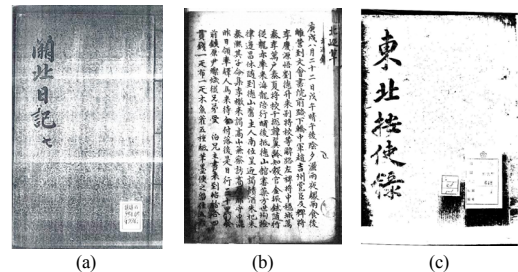


Fig. 2. The Hamkyung-Gamsa's official diaries

- (a) “Gwanbukilgi” (Yongrae Yoon)
- (b) “Sunryeokilrok” (Yongrae Yoon)
- (c) “Dongbukansarok” (Su Shim)

따라서 본고는 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함경도 관찰사의 감영(순력)일기의 전부인 위 3종의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일기 작성 시기는 18세기 전·중기에 한정되지만, 본 분석을 통하여 조선후기 유영행정체제 시기의 함경감사 순력에 대한 대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함경도 관찰사의 순력 기록과 특징

2.1 함경감사 윤양래의 순력 기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인 ‘관북일기(關北日記)’[4]는 윤양래(尹陽來)(1673~1751)가 1729년(영조5) 10월 20일 함경도 관찰사에 임명되면서부터 작성한 감영일기

로, 1730년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함흥 감영의 업무와 한차례의 순력이 기록되어 있다.

국립도서관 소장 “속수함산지통기(續修咸山志通紀)”에 의하면 함경감사 윤양래는 ‘기유년(1729년, 영조5) 11월에 와서 신해년(1731년, 영조7)에 북과(北科)를 감독하고 동년 11월에 판지중추로 갔다’로 되어 있으나, “관북일기”에는 1730년 9월 28일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관북일기”는 후반부 기록이 누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역시 윤양래가 작성한 함경도 순시의 기록인 “순력일록(巡歷日錄)”이 더 존재한다.[5] 감영일기와는 달리 순력 기간만을 한정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순력 기록인 ‘북순록(北巡錄)’ 부분을 살펴보면 “관북일기”의 순력 부분 내용과 일치하며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이 파악된다. “순력일록”에는 ‘북순록’을 포함해 ‘남순록(南巡錄)’, ‘길주별과일록(吉州別科日錄)’ 그리고 그 뒤로 별도의 제목이 붙지 않은 순력 기록 등 그의 재임기간에 걸친 모든 순력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후반부가 결락되어 1차례의 순력 기록만 존재하는 “관북일기” 이후의 순력 내용이 모두 기록된 것으로 파악되며, 양자를 비교·보완함으로써 함경감사 윤양래의 순력에 대한 전체 분석이 가능하다.

Table 1. The *Hamkyung-Gamsa* Yangrae Yoon’s official diaries and Period of *Sulryeok*

Diary title	Sub title	Period of <i>Sulryeok</i>	Order
<i>Gwanbukilgi</i>	-	1730.08.22.-09.23.	1st
<i>Sunryeokilrok</i>	<i>Buksunrok</i>	1730.08.22.-09.23.	
	<i>Namsunrok</i>	1730.10.04.-10.13.	
	<i>Giljubyeolgwaitrok</i>	1731.03.09.-04.16.	
	-	1731.07.26.-08.14.	3rd

2.2 함경감사 심수의 순력 기록

“동북안사록(東北按使錄)”은 장서각 소장으로서 심수(沈鏞)(1707~?)가 1757년부터 1759년까지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시에 기록한 일기이다.[6] 1757년(영조33) 8월15일 강원감영에 도착했다는 짧은 기록 이후로 강원도 도내의 순력 기간 동안만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본서의 뒷부분에 ‘북행일록(北行日錄)’과 ‘북순일기(北巡日記)’가 합철 부록되어 있는 바, ‘북행일록’은 심수가 함경감사로 제수되어 1768년(영조44) 3월27일 사조(辭

朝)한 뒤 4월1일 떠나 4월10일 감영처 함흥에 도착하기까지의 도입 기록이며, ‘북순일기’는 당해년에 행한 순력을 기록한 것이다.

“속수함산지통기”에 의하면 함경감사 심수는 무자년(1757년, 영조33) 4월에 와서 같은 해 12월 총재(蟲災)로 파직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북순일기’는 순력 후 9월11일 함흥 감영에 돌아온 것으로 끝이 난다. 따라서 완결되지 못한 마지막 기사로 약간의 결락도 추정되지만, 그의 재임기간을 고려하면 당해 연도의 순력이 모두 기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2. The *Hamkyung-Gamsa* Su Shim’s official diaries and Period of *Sulryeok*

Main title	Addendum title	Period of <i>Sulryeok</i>
<i>Dongbukansarok</i>	<i>Buksunilgi</i>	1768.08.10.-08.28.
		1768.09.03.-09.11.

윤양래의 “관북일기”와 같이 관찰사가 작성한 감영일기는 업무일지적 성격을 지니며 순력을 포함한 재임기간 전체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수의 “동북안사록”과 ‘북순일기’는 앞서 언급한 윤양래의 “순력일록”과 같이 순력기간만을 별도로 기록한 일기란 점에서 일반적인 감영일기와 차별점을 갖는다.

한편 동일 기간이 기록된 윤양래의 “관북일기”와 “순력일록”을 비교해 보면 순력 기간만을 기록한 “순력일록”의 내용이 대단히 상세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기술 내용 뿐 아니라 순력기간 매 일정 말미에 그날 순력한 곳과 관계된 자작 시문(詩文)도 기록하여 대단히 많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심수의 “동북안사록”과 ‘북순일기’ 등은 이러한 시문의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상호간에 차별점이 있다.

3. 함경도 관찰사의 순력 행로와 업무

3.1 북순과 남순

일기 분석을 통해 함경감사 윤양래의 순력 행로를 정리한 것이 아래 Table 3.이며, 함경감사 심수의 순력 행로를 정리한 것이 Table 4.이다.

Table 3. The *Hamkyung-Gamsa* Yangrae Yoon's major route of *Sulryeok*

<i>Sulryeok</i>	Period of <i>Sulryeok</i>	Major route of <i>Sulryeok</i> (Yangrae Yoon)
1st	1730.8.22 - 09.23 (32 days) Fall	Hamheung Gamyoung → Deoksangwan → Hongwon → Bukcheong → Iseong → Dancheon → Sungjinjin → Gilju → Myeongcheon → Juchongwan → Kyungseong → Buryeong → Hoeryeong → Jongseong → Onseong → Kyungwon → Asanbo → Kyungheung → Deokmyeongcham → Jongseong Haengyeong → Hoeryeong → Buryeong → Kyungseong → Myeongcheon → Gilju → Sungjinjin → Dancheon → Iseong → Bukcheong → Hongwon → Hamheung
	1730.10.4 - 10.13 (10 days) Fall	Hamheung Gamyoung → Jeongpyeong (定平) → Chowon → Yeongheung - Junwonjeon → Gowon - Sukreung → Muncheon → Deokwon - Jireung → Deokwon - Muncheon → Gowon → Yeongheung - Geumpawon → Jeongpyeong → Hamheung
2nd	1731.3.9 - 4.16 (37 days) Spring	Hamheung Gamyoung → Deoksangwan → Hongwon → Bukcheong → Iseong → Dancheon → Sungjinjin → Gilju [special state exam] → {Geumjangsa, Gaesimsa ; a sightseeing} → Gilju → Sungjinjin → Magogyeok → Haosangchon → Naenochon → Ssangcheongbo → Unheowon → Gapsan → Unchongbo → Samsu → Gapsan [literary & archery contest] → Horinyeok → Jongpogwan → Jeingwan → Bukcheong → Hongwon → Hamheung
3rd	1731.7.26 - 8.14 (28 days) Fall	Hamheung Gamyoung → Jeongpyeong - Chowon → Yeongheung - Junwonjeon → Gowon - Sukreung → Muncheon → Deokwon - Jireung → Anbyeon [literary & archery contest] → {Hakpo, Sabong Sunrise, Gukdo, Jakdo, Saam, Wonsadae, Gahakru, Seokwangsa ; a sightseeing} → Deokwon - Muncheon → Gowon → Yeongheung - Geumpawon → Jeongpyeong → Hamheung

Table 4. The *Hamkyung-Gamsa* Su Shim's major route of *Sulryeok*

Period of <i>Sulryeok</i>	Major route of <i>Sulryeok</i> (Su Shim)
1768.8.10 ~ 8.28 (18 days) Fall	Hamheung Gamyoung → Deoksangwan → Hamgwanryeong → Hamwonyeok → Hongwon → Pyeongpo → Bukcheong → Geosangwan → Sijungdae → Iseong → Gokguyeok → Maunryeong → Dancheon → Magok → Macheonryeong → Sungjinjin → Immyeongwan → Gilju → Gochamgwan → Myeongcheon → Gwimungwan → Juchongwan → Gwimungwan → Myeongcheon → Gochamgwan → Gilju [literary & military service contest] → Immyeongyeok → Sungjinjin → Macheonryeong → Magok → Dancheon → Maunryeong → Gokguyeok → Iseong → Changchon → Geosangwan → Bukcheong → Pyeongpo → Hongwon → Deoksangwan → Hamheung Gamyoung
1768.9.3 ~ 9.11 (9 days) Fall	Hamheung Gamyoung → Jeongpyeong → Chowon → Yeongheung - Junwonjeon → Gowon - Sukreung → Deokwon - Jireung → Anbyeon → Wonsan → Deokwon - Muncheon → Gowon → Yeongheung - Geumpawon → Jeongpyeong → Hamheung

1729년 11월에 부임한 윤양래는 1730년 가을에 이르러서야 첫 순력을 행하였다. 다음해인 1731년 봄에는 길주의 별과(別科)를 포함한 순력의 기록이 있고, 가을에는 함흥 남쪽의 능침(陵寢)과 농형(農形)을 살피는 순력을 행하였다. 체임 직전인 1731년 10월에 마지막으로 감영을 떠난 것은 함흥부에 소재한 목조와 목조 비의 덕릉(德陵)과 안릉(安陵)의 사초(莎草)를 위한 4일간의 일정이므로 순력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Table 1. 및 Table 3.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정리하였다.

1768년 4월에 부임한 심수는 8월에 당해년 가을 순력을 행하였는데 8월10일 먼저 북쪽으로 길을 잡아 경성(鏡城)까지 올라갔다가 길을 되집어 8월28일 함흥에 돌아왔다. 10여일 후 9월3일 다시 남쪽으로 출발하여 함경도 최남단 읍치인 안변(安邊)까지 갔다가 9월11일 함흥으로 되돌아 왔다.

함경감사 윤양래와 심수의 순력 행로에서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 6대로 중의 하나인 경흥로를 거의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1770년(영조46)에 편찬된 신경준의 “여지고”, “도로고”의 경흥로와 윤양래의 1차 순력 노정을 비교해보면 경유지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주요 대로를 따라 순력 행로를 잡는 것은 산세가 험한 함경도의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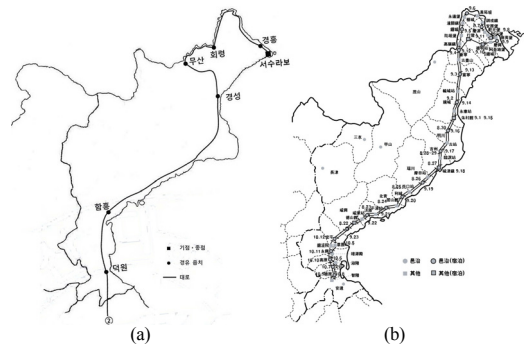


Fig. 3. The comparison between *Gyeongheungro* and *Hamkyung-Gamsa's Sulryeok* route
(a) *Gyeongheungro*(慶興路) in Joseon Dynasty
(b) Yangrae Yoon's 1st *Sulryeok* route

주요 대로를 이용하므로 감영치는 물론 경흥로 상의 역참이 함경감사 순력에 중요한 경유지와 숙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지고”의 경흥로를 중심으로 윤양래와 심수의 순력에 경유한 역참을 열거하면, 금파원, 초원역, 덕산역, 함원역, 거산역, 곡구역, 마곡역, 임명역, 고참, 주

촌역, 영강역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함경감사 순력의 특징은 감영처 합흥을 기준으로 크게 북순(北巡)과 남순(南巡)으로 나누어 시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윤양래의 ‘순력일록’에서 ‘북순록’과 ‘남순록’으로 구분하여 표제한 것에서 확인하며, 남순을 포함하되 “북순일기”로 표제된 심수의 일기에서도 8.19일자 기사에서 남순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감영처를 중심으로 순력을 둘로 나누어 행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경상도[7], 충청도[8], 황해도[9] 역시 감영처를 중심으로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순력을 행하기도 하였다. 긴 순력 여정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중간에 감영처에 되돌아와 잠시 머무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는 좌순과 우순이 비교적 비슷한 기간에 걸쳐있음에 비해, 함경도의 순력은 감영처 합흥이 남쪽에 치우친 탓에 북순은 길고, 남순은 현저히 짧다는 점이 타 지역과 다른 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3.2 북순과 관문취점, 친기위도시, 윤조(輪操)

윤양래의 첫 번째 순력인 1730년 가을 순력에서 보듯 북순은 북병사가 있는 종성(鍾城)의 행영(行營)과 두만강 하구 관방 지역의 진보(鎭堡)까지가 주된 순력 노정에 포함된다. 이 부분의 순력 노정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아래 Fig. 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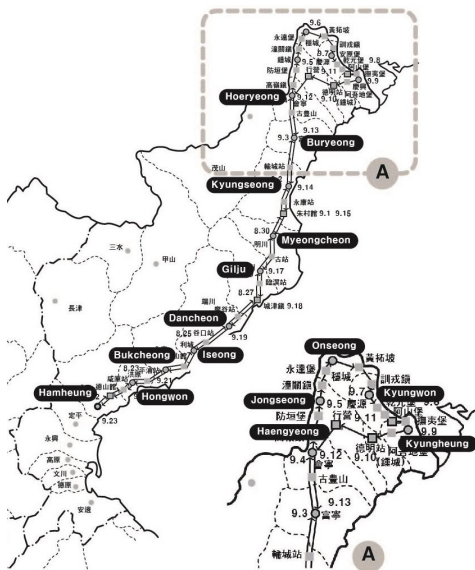


Fig. 4. Yangrae Yoon's 1st north route *Sulryeok*

한편, 심수의 1768년 가을 북순은 행영과 관방의 진보에까지 이르지 않고 경성(鏡城)까지만 갔다가 합흥으로 되돌아온다.(Fig. 5.) 이와 관련해 “비변사등록” 영조 44년(1768) 8월20일자 기사를 참조하면, 함경감사 심수가 현재 백성의 형편으로는 관문(官門) 취점(聚點)이 어려우므로 올가을 삼영(三營)의 친기위도시(親騎衛都試)와 독진(獨鎭) 윤조(輪操)를 정지해달라는 장계를 올린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금년 함경도의 재황(災荒)이 매우 심한 연유로 영조는 심수의 요청대로 이를 정지하라는 비답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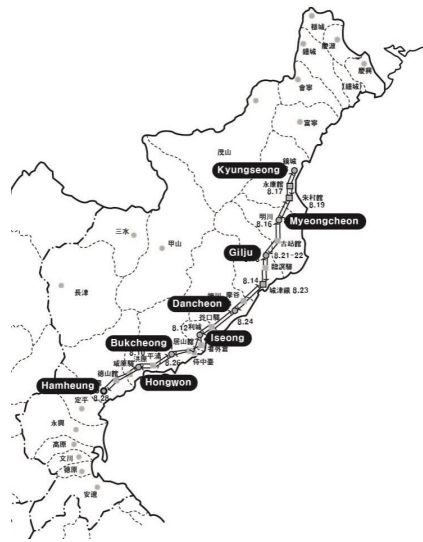


Fig. 5. Su Shim's north route *Sulryeok*

이로써 심수의 북순 노정이 윤양래에 비해 짧았던 연유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북순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관문 취점과 친기위도시 그리고 윤조(輪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한편 병마절도사가 군사훈련을 하는 습조(習操)와 관찰사의 순력과 관련해 윤양래의 순력 중 1731년 3월12일 이성(利城)에서의 기사는 이와 관련한 상세한 예법을 알 수 있도록 해주므로 아래에 옮긴다.

‘병사(兵使)가 습조(習操)할 때 감사(監司)의 순행(巡行)과 만나게 되면 감사가 주벽(主壁)이 되고 병사(兵使)가 그 동쪽에 위치하여 함께 조련(操練)을 행한다는 정식(定式)이 있는데, 내가 관복(冠服) 등 여러 장신구가 갖추어지지 않은 관계로 열무(閱武)하지 못하고 떠났다.’ (尹陽來, “巡歷日錄”, 辛亥(1731) 3월12일)

3.3 남순과 능침 및 왕실사적의 봉심(奉審)

함경감사의 순력 중 남순의 업무와 관련해 특징적인 것은 능침의 봉심이다. 함경도 함흥은 태조 이성계가 성장하고 군사적 기반을 닦은 곳이고, 그 선대가 살면서 쌓은 여러 행적이 도내 곳곳에 산재한 곳이며, 태조 선대의 능침이 있는 곳이다.

“경국대전” ‘예전’ 봉심(奉審)조에는 지방의 능침을 살피는 것이 관찰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함흥 및 그 이남에는 태조 선대의 능침이 자리하므로 함경감사의 남순은 이들의 봉심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윤양래가 1731년 가을 순력에 ‘남도(南道) 능침(陵寢) 추봉심(秋奉審)’이라 적은 것으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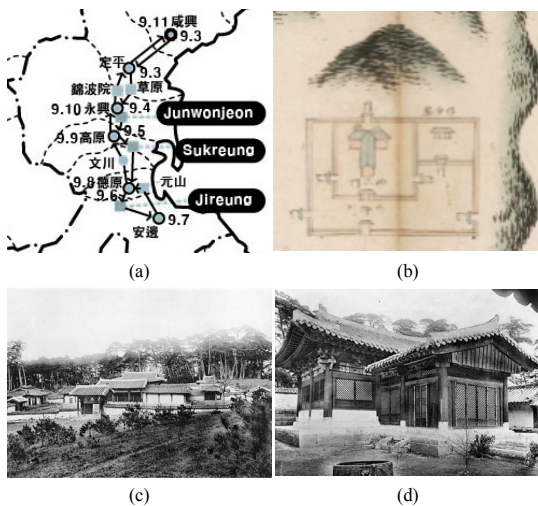


Fig. 6. A south route Sulryeok & the Junnwonjeon
 (a) Su Shim's south route Sulryeok
 (b,c,d) The Junnwonjeon(濬源殿) in Yeongheung [10,11]

함경감사가 매년 남순을 통해 반드시 살피는 능침 및 왕실사적은 영흥의 준원전(濬源殿), 문천의 숙릉(淑陵), 안변의 지릉(智陵)이다. 영흥 준원전은 태조의 태를 묻었던 곳에 세운 조선왕조 개창 기념 전각이며, 숙릉은 태조 증조모 정숙왕후의 능이고, 지릉은 태조 증조부 익조의 능이다.

한편, 윤양래의 도입경로는 “관북일기”의 앞부분에서 그리고 심수의 도입경로는 별도의 ‘북행일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 공교롭게도 신임 함경감사가 궁궐에서 사조(辭朝)를 한 뒤 감영처인 함흥에 도입하는 경로 역시 남순의 경로와 동일하다. 따라서 윤양래와 심수 모두 철령

을 넘어 도계한 뒤 고산관에서 교귀를 마치고, 안변의 지릉, 문천의 숙릉, 영흥의 준원전을 차례로 봉심하면서 감영처 함흥으로 이동함을 찾아볼 수 있다. 관찰사의 업무는 도계를 하면서 시작되므로 비록 순력은 아니지만, 신임 관찰사가 감영처에 이르는 노정 중의 능침과 왕실사적을 봉심한 것이다.

도입행로 중 영흥에서 심수는 준원전 이외에 흑석리 옛터(黑石里 古基)와 비각(碑閣)을 더 봉심한 일이 윤양래와 다르다. 흑석리 비각은 태조 탄강 7갑주를 맞이하는 1755년(영조31) 영흥 유생의 상소를 받아들여 태조의 탄생지란 설이 있는 흑석리 터에 비를 세운 것이다. 윤양래의 도입은 1729년이고 심수의 도입은 1768년이니, 흑석리 비각이 세워진 후에 도입한 심수는 이곳까지 봉심하고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3.4 문무 시험과 유람

윤양래의 1731년의 봄 순력은 ‘길주별과일록’이란 별도의 제목과 같이 길주에서 행한 별과(別科)가 순력의 주요한 목적이다. 현종5년(1664) 처음 시행된 북관 별시 이후 약 10년을 주기로 별시가 정기적으로 시행된 것에 따른 것인데, 별시는 감영인 함흥과 길주에서 행했다.

한편 순력 중 일부 읍지에서 관찰사는 유생 백일장과 무사(武士) 시사(試射)를 거행하고 시상(施賞)하기도 하는데, 심수는 북순 중에 길주에서 유생 백일장과 무사 시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순력 중 길주에서는 문무 시험이 중요한 감사의 업무가 된다.

길주 이외에 백일장과 시사가 시행된 장소는 북순길의 갑산(윤양래), 경성(심수), 남순길의 안변(윤양래) 등이다. 다만 심수의 경성 백일장은 유생이 모이지 않아 실제로는 시행하지 못하였다.

윤양래는 길주에서 순력의 주요 업무인 별시업무를 마치고 인근 명천군의 칠보산(七寶山)을 유람하였다. 칠보산은 함북의 금강으로 북관10경 중의 하나다. 옛 선비들의 유람록을 보면 칠보산 등산은 금장사(金藏寺)를 보고, 개심대(開心臺)와 금강굴(金岡窟)에 오르는 것이 주된 행로였는데[12], 윤양래 역시 이 행로와 같이 칠보산을 유람하였다. 유람 후 윤양래는 역시 관북10경의 하나인 성진진을 거쳐 갑산으로 올라가 앞서 언급한 백일장과 시사를 개최하였다.



Fig. 7. Yangrae Yoon's 3rd Sulryeok ro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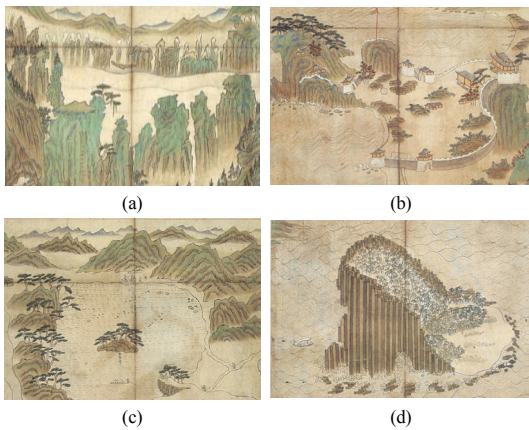


Fig. 8. Album of Ten Scenic Spots of Hamheung and Bukgwan [13]

- (a) Chilbosan (七寶山)
- (b) Sungjinjin (城津鎮)
- (c) Hakpo (鶴浦)
- (d) Pyodo (票島)

한편 1731년 윤양래의 가을 남순은 전술한 바와 같이 능침의 봉심이 주요 업무인데 지름이 소재한 안변에서 백일장과 시사도 시행하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합격자에 대한 시상을 마친 윤양래는 학포(鶴浦) 사봉(沙峰)으로 가서 숙박한 뒤 다음날 일출을 감상하였고, 배를 타고 국도(國島), 표도(票島), 작도(鶴島), 원수대(元帥臺) 등을 유람한 뒤 안변 객사에 돌아왔다. 며칠 후엔 석왕사(釋王寺)에 들러 하루를 묶은 후 순력을 마치고 감영에 돌아왔다. 학포, 국도, 석왕사 역시 북관10경의 하나다.(Fig. 7.)

한편 심수의 순력 노정에는 윤양래와는 달리 유람의 일정이 없다. 이는 심수가 부임한 해에 함경도에 흉년이 든 것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된다. 심수가 부임해 4월10일 감영처 함흥에 들어서자 읍민이 무리를 이루어 말을

끌어안고 하소연하는 자가 무수하였다. 심수는 작년 가을 보리가 흉년이 들은 일이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 8월 가을 순력에서도 백성의 형편을 들어 관문 취점과 운조를 정지하여 순력을 짧게 마쳤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다만 심수의 북순 길에는 유생 이홍상이 유람을 위해 동행을 청하여 따랐다. 그는 명천에서 칠보산을 보기 위하여 길을 나누어 갔는데, 이를 통해 함경도의 칠보산이 주요한 유람처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황해도와 강원도의 경우에도 관찰사의 순력 노정 중에 일부 유람의 일정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9] 함경감사의 순력 노정 역시 윤양래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람의 일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람처는 대체로 북관10경의 대상이 주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관10경은 1674년부터 4년간 함경감사로 재임한 남구만이 순력 경험을 토대로 그린 “북관십경도”의 전승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남구만 이후 관북을 찾는 유람객들은 통상적으로 남구만이 선정한 절경을 둘러보는 시류가 조성되었다.[14] 따라서 함경도에 부임한 후대의 함경감사 역시 북관10경의 경승처를 경유하는 유람의 노정을 순력 행로에 포함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4. 결론

본고는 함경감사가 남긴 감영(순력)일기인 윤양래의 “관북일기”와 “순력일록”, 심수의 “동북안사록” 중 ‘북행일록’, ‘북순일기’를 통해 함경도 관찰사의 순력 노정과 기간, 순력 중의 주요 업무 및 함경도 순력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함경도 관찰사의 순력은 조선시대 6대로 중의 하나인 경흥로를 거의 그대로 이용하므로 경흥로 상의 역참이 중요한 경유지가 된다. 대로를 이용한 순력은 산세가 험한 함경도의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영처 함흥을 중심으로 북순과 남순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남쪽에 치우친 함흥의 위치로 말미암아 종성의 행영(行營)과 두만강 하구 관방 지역 진보(鎭堡)에 이르는 북순의 경로가 긴 것에 비하여, 안변에 이르는 남순은 기간과 경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다. 북순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관문 취점과 친기위도시, 독진의 운조이며, 영흥의 준원전, 문천의 숙릉, 안변의 지릉 등 왕실사적과 능침의 봉심이 남순의 주요 업무가 된다. 현종

5년(1664) 처음 시행된 북관 별시 이후 약 10년을 주기로 시행되는 길주의 별시도 북순 기간 동안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데, 길주에서는 함경감사의 순력 중에 유생 백일장과 무사 시사도 자주 시행되었다.

한편 순력 중의 업무 이외에 행로 중의 경승을 유람하거나, 유람을 포함한 행로를 잡기도 하였는데, 함경감사를 역임했던 남구만 이후 이른바 북관10경이 유람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References

- [1] H. K. Lee, "A Study of Local Buling Administration in Later Joseon", Jip-Moon-Dang, 1999.
- [2] S. J. Yeo, "The Hamgyeong-Gamsa's Sulrye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Proc.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Conference in fall*, pp. 42-44, 2015.
- [3] "Joseon Dynasty Personal Diary 2 - Incheon · Gyeonggi",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pp. 95-99, 2016.
- [4] Y. R. Yoon, "Gwanbukilgi", (Gyujanggak, Ilyang - Go - 951.05 - G9994i)
- [5] Y. R. Yoon, "Sunryeokilrok" (Gyujanggak, Ilyang - Go - 951.052 - su74i)
- [6] S. Shim, "Dongbukansarok" (Jangseogak, K2-0197))
- [7] S. J. Yeo, "The Construction and Characteristics Transition of Gaeksa in Joseon Dynasty", pp. 173-177,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 [8] S. J. Yeo, "The Chungcheong-Gamsa's Utilization of Governing Institutions in 18th Centur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9, no. 1, pp. 143-153, 2008.
- [9] S. J. Yeo, "The Late 18C Hwanghae-Gamsa's Utilization of Governing and Ritual Institutions in Haeju-Mok",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9, pp. 4244-4252,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9.4244>
- [10] "The Bukdoneungjeonji," (Haesa Han 198)
- [11] "Joseon-Gojeokdobo" vol. 11,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1916.
- [12] Kyung-Ho Shim, "Sanmun Kihang", Igaseo, 2007.
- [13] "Historical Maps and Topographical Landscape Paintings of Joseon Dynasty", National Museum of Korea, pp. 188-199, 2013.
- [14] J. A. Park, "A Study on Real-view landscape paintings of Gwanseo and Gwanbuk Region in the Joseon Dynasty", pp. 46-48,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0.

여 상 진(Sang-Jin Yeo)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5년 8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건축역사, 건축문화재